



23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공사가 활기를 띠면서 주요 건물들이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광주시 동구 광산동 옛 전남도청 일원에 건립중인 문화전당은 오는 2014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姜시장-지역 국회의원 “재정 확보되면 법인화 검토 가능”

문화전당 운영주체 논쟁 새국면

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의 법인 위탁을 전제로 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사실상 정부안으로 확정됐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와 관련, 애초 강조해온 문화전당 정부 운영 방침과 달리 재정확보를 전제조건으로 한 법인화 수용 가능성을 언급해 정부와 지역사회간 문화전당 운영주체 논쟁이 새 국면을 맞을 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강 시장은 2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17일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재정확보가 확실하게 법적으로 강구된다면 법인화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재정확보 없이 법인화를 위한 특별법 상정은 반대하기로 지역 국회의원과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강 시장은 또 “문화전당이 2015년

초 문화부에 선법적 재정확보, 후 문화전당 법인화를 건의한 바 있어 특별한 입장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은 강 시장의 발언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범시민연석회의' 측은 문화전당을 어떤 조건으로든 법인화하면 공공성 보다는 수익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서다.

강 시장의 발언에 대한 문화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맡고 있는 문화부 관계자는 “법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문화전당의 재정확보를 위한 조항을 정부가 새롭게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법률안의 처리는 국회에 맡겨져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절실한 과제로 떠올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 ‘절반의 회군’

정기국회 전면 참여 선언...전국순회 장외투쟁 병행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 문제 등을 내세워 거리로 나선 지 54일 만에 정기국회 전면 복귀를 전격 선언했다.

〈관련기사 3면〉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 정기국회라는 장(場)을 통해 강력한 원내투쟁을 벌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다만, 서울광장의 천막당은 그대로 유지하며 장외투쟁도 한층 강화하기로 하는 등 원내외 병행투쟁을 계속하는 방침을 정했다. ‘절반의 회군’으로 불리는 이유다.

민주당의 이날 결정은 계속 거리투쟁에 의존할 경우 제1야당이 민생을 불모로 국회를 계속 등진다는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는 부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원외는 제게 맡기고 원내에 집중해달라”며 “매서운 원내투쟁”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과거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존재감을 한껏 과시했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총재 시절의 ‘야당 활약사(史)’를 재연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장외투쟁 일변도 방식에서 벗어나 원내활동에서 야성(野性)을 드러냄으로써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이겠다는 것이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의원들이 정기국회 기간 국회에 상주하며 밤이건 새벽이건 집단토론과 소모임을 자주 가질 것”이라며 “24시간 열공” 모드로 원내투쟁의 새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정기국회 기간 원내에 ‘24시간 비상국회 운영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특히 정기국회 막바지인 12월 입법·예산논쟁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여당과 한판 붙어 제압하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의 협조 없는 정부·여당의 ‘단독 강행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데 대한 자신감도 깔려 있다.

민주당은 동시에 서울광장의 천막을 거점으로 유지하며 장외투쟁의 전국적 확산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김대표가 직접 전국을 순방하는 한편으로 시민사회세력 등과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범국민운동체인 ‘박지연대’를 발족하는 방식이다.

이날 의총에서는 박지연·추미애·김영록·이윤석 의원 등이 “천막투쟁은 접자”는 의견을 제기했으나 김대표는 “아직 건강에 문제없다”며 “노숙투쟁” 고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연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은행 인수 7곳 예비입찰 지역상공인연합·신한銀 등 참여

광주은행 인수에 광주·전남상공인연합과 금융지주, 시중 대형은행 등 모두 7곳이 출사표를 던졌다.

〈관련기사 10면〉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이날 오후 5시까지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 서류를 마감할 결과, 신한금융지주, JB(전북은행)금융, 광주·전남상공인연합, 광주은행 우리사

주조합, DGB금융지주, BS금융지주, 지구촌영농조합이 각각 예비입찰을 신청했다.

대구은행을 자회사로 둔 DGB금융지주와 부산은행의 모회사인 BS금융지주는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모두 예비입찰했다.

일제감치 예비입찰 할 것으로 알려진 광주·전남상공인연합과 JB금융 외에도 광주은행 우리사

주조합도 예비 입찰에 참여했다.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을 두고 저를 갈라던 신한금융은 마감 직전에 광주은행을 택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실사와 본 입찰 등을 거쳐 내년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할 전망이다. 광주은행의 인수가는 1조1000억~1조20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내년 수능 11월 13일 시행...수준별 영어 폐지

수시 최저학력기준 수능 백분위 금지, 등급만 반영

현재 고교 2학년들이 보는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내년 11월 13일에 치러진다. 영어영역의 수준별 수능은 폐지되고, 대신 영어 A형(영어 I)과 B형(영어 II)을 하나로 통합해 출제된다.

〈관련기사 7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20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확정안'을 발표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수준별 수능의 경우 국어·수학은 유지하되, 영어는 폐지했다. 영어의 출제범위는 기존 A I)과 B형(영어 II)을 하나로 통합해 출제과목인 '영어 II'로 통합했다.

정형 수는 수시 3개(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위주)와 정시 2개(수능, 실기 위주)로 축소된다.

수시모집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백분위가 아닌 등급만 사용토록 해 수능성적 반영비율을 낮췄다. 정시모집은 같은 학과를 분할모집하는 것이 금지된다. 수능일은 올해(11월7일)보다 일주일가량 늦은 11월 13일에 시행된다. 대학 모집요강은 현행 5월 말에서 4월 말로 앞당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www.HanaTour.com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여행의 계절 가을, 하나투어에서 추천하는 가을테마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상담 및 예약: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윤기주하나투어 (신세계 이마트 1층)	062)360-0166
세정투어여행사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062)464-8000
모든나라여행사 (전남대정문)	062)521-2100
남해여행사 (목포 한시랑병원)	061)287-4100

하나투어 창립기념일 맞이 [무안출발] 특가 상품 ★20석 한정★

[CBPF01-OZG] 북경(베이징) 4일 399,000원 ~ 11월 11일 매주 화요일 출발	[CCPF34-MUC] 상해/항주/황산 4일 499,000원 ~ 11월 6일 수요일 출발
--	---

장가계 직항 전세기

자연이 빚어낸 최고의 걸작

무안출발 10월 8일(화)~11월 12일(화) 총 11회

매주 화요일(3박4일)/금요일(4박5일)

[CJPF01-FM] 장가계/원가계 4일 899,000원 ~	[CJPF01-FM] 장가계/원가계 4일 999,000원 ~
[CJPF01-FM] 장가계/원가계 5일 949,000원 ~	[CJPF01-FM] 장가계/원가계 5일 1,049,000원 ~

석가장 직항 전세기

인천출발 9월 28일~11월 9일

매주 수요일/토요일

[CNP88-OZ] 석가장/태항산 5일 799,000원 ~	[CNP88-OZ] 태항산/면산 5일 899,000원 ~
[CNP88-OZ] 석가장/태항산 4일 699,000원 ~	[CNP88-OZ] 면산 4일 799,000원 ~

호주/뉴질랜드 남북선 10일

4,500,000원 ~

입성 11월 20일 ~ 11월 29일 / 8박 10일

호수/핀란드 남부선 10일

399,000원 ~

출발일 9월 10일 ~ 12월 18일

양곤+바오+시리암+달라섬 [AIP132131005OZ] [트라이스토폴 체임] 미얀마 6일

1,099,000원 ~ 699,000원 ~

출발일 10월 5일(토)

■ 서울시 중구 광명동 1번지 (하나투어)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 제26004-1993-6(중구구청) ■ 관광관련신고 Tel 1577-1233

■ 22억1천만 원 보증보험 가입 ■ 속속2급호텔이상 ■ 교통편: 항공/버스/페리 ■ 항공사별로 유통할증료 인상금액이 상이하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